

관광지 순환버스 재정 지원 중단

지난 4년 수입 8억3000만원... 78억여원 적자 기록
 도, 급행버스 700원·리무진 2000원 요금 인상 추진
 노선 시간 조정·감차·폐지 추진... 210억 절감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5월부터 도내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관광지 순환버스의 요금 수입금은 8억3000만원으로, 78억4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높아지는 렌터카 이용률을 고려하면 노선 1회 운행당 9명이 탑승하는 관광지 순환버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관광지가 아닌 마을을 돌거나 관광지 한 곳만 운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해안가 명소 운행은 중단됐다.

아울러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 까지 제주시 지·간선 13개 노선의 버스 시간 조정과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재정부담 절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중 장거리 급행버스 요금 700원 인상, 리무진 요금 2000원 내외 인상을 추진한다.

또 지선 버스 중소형화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료 및 정비비 등의 항목에 대한 운송원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송원가 항목별 비용 효율적 상한제를 도입, 운송원가의 합리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급행버스·리무진 요금 인상을 통해 도민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복지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확대되면서 운행대수는 459대에서 769대로 약 67% 증가했다.

도내 버스 노선수도 78개에서 196개로 2.5배나 증가했다.

제주자치도는 대중교통 개편 당시 재정지원금 규모를 298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2021년 기준 지원금은 658억 원이었고 요금수입은 443억 원, 교통복지비는 349억 원이다.

이러 2022년 7개 버스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793억원, 요금 수입 458억원, 교통복지비는 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버스 운행대수당 이용객 수가 적어 수익성과 공익성이 낮은 노선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노선 개편을 통해 21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밥 주세요!” 29일 서귀포시 성산리 한 건물 처마에 동자를 틈 제비가 동지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눈 앞

국회 법사위, 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의결 시 대공원 조성 '탄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안 발의 2년여 만에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다.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같은 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지난해 2월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로 회부됐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회부돼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가능성 진단

도, 7월 22일 제주국제박람회 기간 국제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1일에 열리는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과페 제주'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제주도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7월 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푸과페 제주의 연계행사로 마련된다.

포럼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이 푸드테크와 같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해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본 델리시 키친 컴퍼니(DELISH KITCHEN Company)의 공동 설립자 치하루 스가와라(Chiharu Sugawara) 대표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신산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기원 교수가 각각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 디지털 기술

로 성장하라'와 'K-농촌융복합산업, 푸드테크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서 2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강경심 공주대학교 의식상품학과 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로드리고(Rodrigo) 브라질 국제농업유통 컨설턴트, 앤서니 토마스 밀리컨(Anthony Thomas Milliken) 미국 푸드페스티벌·파머스 마켓 기획자, 김한상 농업회사법인 제우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고대로그 기자

김광수 교육감 취임 1주년... 2면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4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3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설치해 보세요!

각종행사장/개업식/집들이/야외휴게공간설치
 주차장용/야외음식점 및 호텔 및 펜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각종 천막 탁자 의자 판매 임대

몽골천막, 자바라천막, 창고형천막

각종행사 단체식사 주문 환영

한식, 일식, 양식 등

종합이벤트

한라기획

(주)카리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흑돼지바베큐전문)

대표 김 봉 균

- 사무실 : 744-6688 제주시 공방매길 116 (아라1동)
- FAX : 749-8668 • jejuhanla@daum.net
- H·P : 010-2623-6688